



보도시점 2026. 2. 5.(목) 11:40 배포 2026. 2. 5.(목) 09:00

압전단결정 소재 생산, 로봇 솔루션 설계 등 혁신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구윤철 부총리, 신산업분야 혁신기업 현장 방문 및 기업 간담회 개최
- 압전단결정 소재 생산 현장 및 로봇 공정을 규격화한 플랫폼 시연 참관
-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위한 기술혁신의 중요성 강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목) 오전, 압전단결정(압력을 전기로 바꾸는 초고성능 센서 소재로, 초음파·소나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 소재 생산 기업인 (주)아이블포토닉스와 로봇 솔루션 설계 및 표준화 플랫폼 구축 기술 보유 기업인 (주)브릴스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혁신기술로 신산업분야를 이끄는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 혁신 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요 >

1. 기업 현장 방문

▶ (일시·장소) '26.2.5.(목) 09:30~10:25, (주)아이블포토닉스, (주)브릴스

2. 혁신기업 간담회

▶ (일시·장소) '26.2.5.(목) 10:45~11:40, 인천상공회의소

▶ (참석기업) (주)넥스젠파워, (주)브릴스, (주)아이블포토닉스, (주)원광에스엔티, (주)제이애피메디, (주)에이피텍, (주)나우로보틱스 등

이날 첫 번째 방문지인 (주)아이블포토닉스에서 부총리는 의료·방산용 센서의 핵심 소재인 압전단결정 소재의 국산화 성공사례를 확인하며, 원천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방산 장비의 자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기술 및 시설을 신성장·원천 기술에 추가하여 투자금액의 최대 40% 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어 방문한 (주)브릴스에서는 로봇 공정을 규격화한 '표준화 플랫폼' 시연을 참관하며 제조업 AX의 미래를 점검했다. 정부는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퍼지컬 AI 원천기술 개발(150억원), 범용 휴머노이드 기술개발(300억원) 등 R&D 지원을 확대한 바 있고, AI 로봇 활용 가속화를 위해 산업 분야별 안전기준 재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압전단결정 소재 생산 라인과 다중 로봇 정밀 제어 기술 시연을 참관하며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기업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혁신 기업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직면한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로봇 산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 강화”, “바이오·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기업 R&D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부총리는 ”AI, 반도체 등 ‘26년 총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공계 과학기술 및 AI 핵심인재 양성, 6대 유망분야 첨단 의료기기 전주기 R&D,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확대 등 바이오 산업 육성과, 기업 중심의 패키지 정책지원 등을 통해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성과 가시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화답했다.

* '26년 분야별 투자계획(안, 조원) : (AI)6.0 (반도체)4.2 (이차전지)1.6 (디스플레이)0.5

(바이오·백신)2.3 (수소·연료전지)0.6 (항공우주·방산)0.7 (모빌리티)3.1 (미디어·콘텐츠)1.0 등

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연 (044-215-4570)
		담당자	사무관	박지영 (jy0505@korea.kr)
			사무관	조선희 (shcho79@korea.kr)
			주무관	백철민 (novalet@korea.kr)
인천광역시	산업창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심순옥 (032-440-5021)
		담당자	주무관	홍안나 (barbeque@korea.kr)